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주관적 자아인식 관계 연구

조지용¹, 임효남², 김두리², 강경희³, 김설희³, 김용하⁴, 이종형⁴, 안상윤⁴,

김광환^{4*}, 송현동⁵, 황혜정⁶, 김문준⁷, 박아르마⁷, 구진희⁸, 장경희⁹

¹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건양대학교 간호대학, ³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⁴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⁵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 ⁶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⁷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⁸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 SW교양학부, ⁹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 Experience and Subjective Self-awareness

Gee-yong Jo¹, HyoNam Lim², Doo-Ree Kim², Kyung-hee Kang³, Seol-Hee Kim³

Yong-Ha Kim⁴, Chong-Hyung Lee⁴, Sang-Yoon Ahn⁴, Kwang-Hwan Kim^{4*}

Hyeon-Dong Song⁵, Hey-Jeong Hwang⁶, Moon-Joon Kim⁷, A-rma Park⁷,

Jin-Hee Gu⁸, Kyung-Hee Chang⁹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nyang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³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onyang University, ⁴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⁵Department of Global Hotel & Tourism, Konyang University, ⁶Department of Health & Welfare Management, Konyang Cyber University, ⁷College of Humanity, Konyang University, ⁸Division of Software Liberal Arts, Stokes College, Mokwon University, ⁹Wellodying Convergence Laboratory,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주관적 자아인식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할당표집방법으로 312명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사회적 자아인식이 자아정체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경험자의 경우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자원봉사비경험자는 비교적 단순한 봉사활동 참여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에 따라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성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과 자원봉사 참여여부, 자원봉사 참여의지수준을 비롯한 사회적지지는 연구대상의 자아정체성을 예측하는 설명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인식을 긍정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의미 부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자원봉사 실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 성인기부터 노년기까지 웰에이징을 위하여 건강한 자아형성이 가능하도록 봉사활동의 요구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능동적 여가활동으로서 자원봉사 동기강화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자원봉사활동경험, 사회적지지, 자아정체성, 생애주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plained the experience of volunteering activities and the relationship of subjective self-awareness in order to examine the social meaning of volunteer activities. For adults aged 20 or older, 312 volunteering experience and social support awareness were analyzed on the level of self-identity by allocation sampling method depending on gender and age.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ose who have experienced volunteer activities have a relatively simpl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rofessional volunteer activities and those who have experienced volunteer activities. Second, social support and self-identification wer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experienced volunteer activities. Third, age, volunteer participation, willingness to participated in volunteering, and social support were analyzed as explanatory factors predicting self-identific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volunteer activities to positively promote self-awareness suggested the need to practice volunteer activitie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so that social meaning can be given. As a policy suggestion, the need for volunteer activities was closely analyzed to enable healthy self-forming for well-aging from adulthood to old age to discussed the need for policies and systems to strengthen volunteer motivation as leisure activities.

Key Words : volunteer activities, social support, self-identification, life cycl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C2A04092504)

*Corresponding Author : Kwang-Hwan Kim(kkh@konyang.ac.kr)

Received March 29, 2021

Revised April 22, 2021

Accepted May 20, 2021

Published May 28, 2021

1. 서론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연대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실천활동이다. 봉사를 제공 받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당사자도 개인의 역할 인식 강화로 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1-9]. 지역사회의 욕구 다양성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는 더욱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자원봉사 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수의 양적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현재 사회복지자원봉사 현황으로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8,168천 명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12.7%에서 매년 약 0.8%씩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10].

자원봉사활동이 증대된 배경을 봉사활동 경험의 의미 부여에 따른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으로 자원봉사활동참여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환원하여 자신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등 도움이 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강화시킨다[11]. 공적인 활동으로서 자원봉사 실천이지만 개인적 의미에서는 거래 관계를 통해 참여와 지속적 활동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차원의 관점에서 자원봉사는 참여 활동으로 갖게 되는 개인적 만족을 넘어 사회의 인적 자원이자 기여자로서 봉사활동 역할자로서의 의미를 추구한다[12].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연령대를 구분하여 참여 수준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최근 10년간 참여빈도가 높은 집단은 15-19세 청소년이며, 이들은 20대와 함께 전체 봉사자 중 6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타 연령집단과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13,14]. 해당 연령대의 자원봉사 동기는 학업성취 등 대부분 비자발적 요소가 강한 측면이 작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수준이 높다. 그러나 이후 성인기의 봉사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는 봉사활동의 참여 의미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결국 학업적 성취 지표의 일부로 설계된 개인적 차원의 봉사의 의미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회적 의미로서 전환되지 못하기에 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연령대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태도는 이타주의와 같은 동기에 의해 결정되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강할 경우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15,16]. 개인의 역할이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우울,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등 정신건강 수준이 긍정적으로 향상되며 그 효과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17]. 자원봉사의 긍정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경험이 성인기 이후 낮아지는 이유는 성인기의 경우 역할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자신이 몰입하는 과업으로부터 발견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높았던 자원봉사활동 참여수준이 노년기에 다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스스로 인식하는 개인의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참여하는 역할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으로 연결되기에 자원봉사의 참여 경험과 주관적 자아인식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부여를 제시하는데 유의미한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는데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내면화된다면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다. 기존의 자원봉사경험 관련 연구들은 경험수준과 자아인식의 관계성을 살펴본 관점이 주를 이루었다[18-20]. 특히 연령이 높은 자원봉사자 일수록 자원봉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21], 생활주기상 성인기 이상 연령대의 자원봉사자 역할은 다양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인하여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지지의 인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결국 자원봉사 경험이 사회적 역할 정체성 향상을 갖게 되는 경험을 선형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22].

기존 자원봉사활동 연구에서 봉사 대상자의 연령대별로 정서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대학생[23], 중·장년[24], 노인[25-27]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연구들이 있으나 모든 연령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자아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이다.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주관적 인식이 자아의 역할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사회적 의미 추구가 역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성인기 이상 연령 집단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령집단별로 자원봉사의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결과분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자아인식을 대표하는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상호작용인 자원봉사활동을 기본 축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으로 연구대상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를 설정하여 변인간의

인과적 구조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성인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인식태도가 사회적 상호작용인 자원봉사활동 간의 연계성을 구체화하여 생활주기에 따른 웰에이징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자원봉사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성인의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성은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자원봉사 경험과 사회적 지지 인식은 성인의 자아정체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원봉사활동 경험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이나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타심의 발현과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다[28].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시민들의 공동체성을 증대하게 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역량을 형성하는데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자기결정에 의해 비롯되는 활동으로서 타 영역과 자원봉사활동이 차별적 의미는 활동경험을 통해 개인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적 의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추구를 들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구집단은 10-20대의 연령 분포가 가장 넓지만, 실질적으로 평균 참여시간의 비중은 오히려 60대 이상 연령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 의미를 기반으로 한 참여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29]. 생활주기에 따라 맞이하게 되는 개인의 역할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는 긍정적 자아인식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30]. 대안적 여가생활로서 봉사자로서의 역할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더욱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31].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봉사활동 만족도, 중요성 인식수준, 지속요인 등 주로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반응적 태도를 측정용 목적으로 진행되었다[32-34]. 이러한 연구의 관점은 봉사활동 경험을 참여 횟수 등 양적변수로 제한하고 있기에, 봉사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자아의 주관적 인식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실천적 함의를 부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2 주관적 자아인식

자아인식은 처해진 환경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인식하는 역량을 의미한다[35]. 이러한 역량은 인식의 태도로서 개인의 감정 조절이 주어진 상황에서 기능적 수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수준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아정체성과 사회적지지로 정의하였다. 자아정체성은 개인이 가진 다양한 인격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동질적이고 연속적으로 인식하는지를 판단하는 상태이다[36]. 인격은 미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의 경험에 따라 구조화되며, 결국 자아정체성의 발달은 자기통합을 이룩하려는 생애발달의 연속적인 과정이다[37]. 자아정체성의 개념을 7가지 측면으로 구조화하여 조각적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명확한 자신에 대한 정의, 인생의 목표, 가치 수립, 신념을 정립하는 것에 관여, 이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 실행 여부, 정체성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범위의 고려, 자기 수용의 수준, 개별의 독특성에 대한 인식,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 태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38].

자아인식 태도로서 사회적지지는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정서적 지지를 의미하지만, 이를 더하여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사회적지지 인식을 포함한다[39].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문제해결 역량으로 정의하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의 부정적 적응상태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활동경험이 긍정적 자아인식을 갖도록 하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기존 연구로부터 발견되었다[40-42].

생애발달에 건강한 자아형성에 기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은 활동 자체 보다 역할 참여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심리사회적 위기는 언제나 개인이 경험하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적응유연성(resilience)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역량이다.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사회참여 경험은 개인의 역할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주관적 인식을 갖게 한다[43]. 따라서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국 자신을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간발달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위기에서 자아인식은 다음 발달단계로 성숙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에, 사회적지지

와 자아정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실천 전략의 제시가 가능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대학생을 포함한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할당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2021년 2월 9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312명의 유효응답내용을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분포를 Table 1에서 살펴보면, 남성은 51%, 여성은 49%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응답자의 분포도 70대 이상을 제외한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16.3% ~ 22.8%의 비율로 나타나 비교적 고른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312	
		N	%
Gender	Male	159	51.0
	Female	153	49.0
Age	20-29	57	18.3
	30-39	56	17.9
	40-49	69	22.1
	50-59	71	22.8
	60-69	51	16.3
	≥70	8	2.6
	Degree of educational	≤High school graduation	63
College or University graduation		220	70.5
Graduate school graduation		29	9.3
Religion	Protestantism	71	22.8
	Catholic	32	10.3
	Buddhism	37	11.9
	Have no religion	171	54.8
	Other	1	.3
Marital status	Single	117	37.5
	Married	178	57.1
	bereavement	9	2.9
	Divorce	8	2.6
Volunteer experience	Experience	69	22.1
	No experience	243	77.9

연구대상자의 학력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응답자 비율이

70.5%로 가장 높았고, 종교를 갖지 않은 응답자 비율이 54.8%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응답자는 개신교의 비율이 22.8%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자의 비율이 57.1%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2.1%로 조사되었다.

3.2 측정도구

3.2.1 자원봉사활동 경험

자원봉사활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자원봉사경험 응답자와 비 경험 나누어 측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자원봉사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빈도, 봉사활동 참여 시간, 참여 봉사활동 유형 등을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자원봉사 비 경험 응답자의 자원봉사 참여의지와 욕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원하는 봉사활동 유형을 조사하였다.

3.2.2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박지원(1985)에 의해 개발된 것을 김연수(1995)에 의해 수정·보완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비공식지지체계 및 다양한 사회적지지의 측면들을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총점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4-45]. 원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971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1로 분석되었다.

Table 2. Social support scale reliability

Scal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7	.887
	Information support	6	.890
	Material support	6	.840
	Evaluation support	6	.859
Total		25	.961

3.2.3 자아정체성

종속변수인 자아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조학래(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독특성, 미래계획, 사회성, 자기수용, 자율성, 적응력, 가치요인등 7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자아정체성 점수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정체성의 인식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46]. 자아정체성 원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92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는 .890로 나타났다.

Table 3. Self-identification scale reliability

Scal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Self-identification	Uniqueness	5	.786
	Future planning	4	.627
	Sociability	4	.783
	Self-acceptance	4	.811
	Autonomy	4	.899
	Adaptability	3	.668
	Value	3	.608
Total		27	.890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정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빈도분석으로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적특성과 자원봉사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봉사활동경험에 따른 자아인식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으로 사회적지지, 자아정체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사회적지지 인식과 자아정체성 수준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된 통계패키지는 SPSS 21.0이다.

4. 연구결과

4.1 자원봉사활동 경험 분석

자원봉사활동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Table 4, Table 5와 같다. 자원봉사 경험 활동빈도는 정기적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5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 봉사활동 응답자로는 월 1회가 21.7%이고, 주 1회 활동빈도가 11.6%로 나타났다. 참여빈도 뿐만 아니라 활동수준을 참여 시간으로 살펴본 결과 1년간 20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빈도가 43.5%로 조사되었고, 50시간 이상 응답자의 분포도 15.9%로 분석되었다. 봉사활동 참여자의 차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분

야로는 단순노력봉사인 일손돕기(18.8%) 보다는 캠페인 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자선구호활동, 교육지도활동 등 능동적이며 지속적인 참여로 가능한 전문 봉사자로서 역할(72.4%)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Volunteer Participants

Variables		N=69	
		N	%
Frequency of volunteer activity	≥ Twice a week	4	5.8
	Once a week	8	11.6
	Once biweekly	5	7.2
	Once a month	15	21.7
	Irregular	36	52.2
	Other	1	1.4
Hours of volunteer activity	< 20 hours	30	43.5
	20 ≤ hours < 30	16	23.2
	30 ≤ hours < 40	8	11.6
	40 ≤ hours < 50	4	5.8
	≥ 50 hours	11	15.9
Volunteer activities that want to participate	Simple services	13	18.8
	Consolation activities	5	7.2
	Educational activities	10	14.5
	Campaign activity	11	15.9
	Preservation activities of environmental facilities	11	15.9
	Community development activities	10	14.5
	Relief activities	8	11.6
	Other	1	1.4

Table 5. Characteristics of non-experienced volunteers

Variables		N=243	
		N	%
Reasons for not participating in volunteer work	Not have a time to volunteer activity	98	40.3
	Not have any information to volunteer	39	16.0
	Not have volunteer activity facilities in community	35	14.4
	Volunteer activities does not helpful to myself	43	17.7
	No one recommends volunteering	1	.4
	Others	27	11.1
Volunteer activities that Want to participate	Simple service	121	49.8
	consolation activities	12	4.9
	Educational activities	24	9.9
	Campaign activity	10	4.1
	Preservation activities of environmental facilities	29	11.9
	Community development activities	20	8.2
	Relief activities	13	5.3
Others	14	5.8	

자원봉사활동 비경험자의 봉사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봉사활동 시간이 없어서로 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봉사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17.7%,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어서(16.0%), 봉사활동을 할 지역에 기관과 시설이 없어(14.4%)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으로 조사되었다.

봉사활동 비 경험자로서 원하는 참여 봉사활동 영역으로는 일손돕기가 49.8%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봉사경험자와는 대조적인 다른 응답의 패턴이 확인되었다. 보다 전문적인 봉사활동 영역으로는 환경시설보존 활동이 11.9%를 제외하고는 다른 유형의 봉사활동에는 응답의 분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자원봉사활동경험에 따른 자아인식태도 분석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에 따라 자아인식태도를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 Table 7과 같다. 사회적지지 인식은 자원봉사활동 경험자의 경우 평균 88.6점으로 비경험 집단과 비교하여 확률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143, p<.05$).

Table 6.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perceptions based on volunteer experience

Scale		Experience	M	SD	t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Yes	25.0	4.2	2.779**
		No	23.7	4.5	
	Information support	Yes	21.5	3.6	1.416
		No	20.7	4.0	
	Material support	Yes	20.4	3.9	2.115*
		No	18.9	3.9	
	Evaluation support	Yes	21.8	3.5	2.435*
		No	21.0	3.6	
Total	Yes	88.6	13.9	2.143*	
	No	84.3	14.9		

* $p<.05$, ** $p<.01$

비경험집단과 비교하여 자원봉사 경험집단은 사회적지지의 4가지 하위요인 중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서적 지지는 지지체계로부터 얻게 되는 관심과 신뢰, 애정의 인식을 측정된 것으로 봉사활동경험집단이 평균 25.0점으로 비경험집단과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779, p<.01$). 평가적 지지는 비공식적 지지체계로부터 얻는 인정감에 대한 인식이며, 자원봉사활동집단이 21.8점으로 비경험 집단보다 0.8점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t=2.435, p<.05$).

자아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결과는 Table 7에서 제시하였다. 자아인식 태도로서 자아정체성은 자신을 안정적이고 일관성있게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관점으로,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라 자아정체성 인식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자아정체성이 89.5점으로 비 경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t=2.756, p<.01$).

Table 7. Differences in self-identity perception based on volunteer experience

Scale		Experience	M	SD	t
Self-identification	Uniqueness	Yes	23.2	3.4	2.838**
		No	21.8	3.7	
	Future planning	Yes	12.8	2.2	2.719**
		No	11.9	2.4	
	Sociability	Yes	12.8	2.1	1.980*
		No	12.1	2.8	
	Self-acceptance	Yes	12.0	3.1	1.252
		No	11.5	2.9	
	Autonomy	Yes	12.9	3.0	1.838
		No	12.2	2.7	
	Adaptability	Yes	10.9	1.7	.241
		No	10.8	1.9	
	Value	Yes	10.3	1.8	3.715***
		No	9.3	2.0	
	Total	Yes	89.5	12.4	2.756**
		No	84.7	13.0	

* $p<.05$, ** $p<.01$, *** $p<.001$

하위요인 중 가치($t=3.715, p<.001$), 개별성 인식($t=2.838, p<.01$), 미래계획($t=2.719, p<.01$), 사회성($t=1.980, p<.05$)요인에서 모두 자원봉사활동 경험자의 자아정체성 인식 수준이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치요인은 자원봉사 비경험 집단보다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평균값이 확률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차이로, 개인의 주관적 가치가 일관적이며 연속적인 태도가 자원봉사활동 경험집단에서 두드러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3 자아정체성 영향 요인 분석

자원봉사활동 경험 변인이 자아정체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8에서 제시하였다. 독립변수 중 비연속변수인 성별, 종교, 혼인상태, 봉사활동 참여 여부 및 참여 유형 변인은 더미변수로

Table 8.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experience factors in volunteer activities on self-identification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value	B	β	t-value	B	β	t-value
Demographic variables									
Gender(0=Female)	-2.461	-.095	-1.677	-1.876	-.072	-1.295	-2.374	-.092	-1.038
Age	.087	.095**	2.416	.079	.086*	2.296	.145	.158**	2.936
Religion(0=No religion)	.980	.038	.660	.834	.032	.568	-1.281	-.049	-1.079
Marital status(0=No spouse)	1.663	.064	.949	1.733	.066	1.007	-1.608	-.061	-1.141
Volunteer experience variables									
Volunteer experience(0=No experience)				6.310	.202***	3.332	3.596	.115*	2.336
Type of participation(0=Simple service)				11.292	.174**	2.895	7.543	.116*	2.401
Social Support variables									
Emotional support							2.446	.252*	2.358
Information support							-.184	-.055	-.555
Material support							.205	.062	.697
Evaluation support							1.711	.470***	5.401
Constant		84.101			84.041			36.440	
R2(Adj. R2)		.029(.017)			.072(.054)			.414(.395)	
F		2.666*			3.970***			21.285***	
ΔR2		-			.043			.385	

*p<.05, **p<.01, ***p<.001

처리하여 회귀분석 모델에 투입하였다. 첫 번째 모델에서는 인구사회적변인으로 성별, 연령, 종교, 혼인상태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자아정체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자아정체성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전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변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하여 독립변인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역시 1.01~2.89로 다중공선성으로 인하여 회귀계수 해석에 문제가 될 변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회귀모델은 유의수준에서 선형성 가정에는 위배되지 않았으나(F=2.666, p<.05) 종속변수인 자아정체성을 설명 가능한 수준은 2.9%로 매우 낮았다. 투입된 변수중 연령 변수만 유일하게 자아정체성을 설명하였다(β=.095, p<.01).

두 번째 모델에는 자원봉사활동 경험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자아정체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투입된 변인으로 자아정체성을 설명 가능 수준은 7.2%로 인구사회적 변인만 투입한 첫 번째 모델과 비교하여 설명력이 4.3% 증가되었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으로 경험 여부와 활동 참여유형 중 일반 노력봉사를 0, 전문적 봉사를 1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변수와 더불어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β=.202, p<.001), 활동 참여 의지유형(β=.174, p<.01)변인 모두 자아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세 번째 모델은 앞서 투입된 인구사회적 변인, 자원봉

사 경험 변인에 사회적지지를 인식을 각 하위요인으로 추가하여 분석한 회귀분석으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지지가 자아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기존 모델보다 38.5% 증가된 41.4%로 분석되었다. 회귀식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인구사회적 변수로 연령 (β=.158, p<.01), 자원봉사활동경험 변인으로 자원봉사 경험(β=.115, p<.05), 활동 참여의지유형(β=.116, p<.05)과함께, 사회적지변인 중 정서적지지(β=.252, p<.05), 평가적지지(β=.470, p<.001)요인이 자아정체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경험자 일수록, 전문적 봉사참여의 의지를 지닐수록, 사회적지지중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아정체성 인식 수준의 향상을 예측할 수 있다.

5. 결론 및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자아인식으로서 자아정체성을 설명하는 변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인식태도가 사회적 상호작용인 자원봉사활동 간의 연계성을 구체화하여 생활주기에

따른 웰에이징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목적을 두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의 참여자의 경우 활동 빈도는 낮았지만, 향후 봉사활동은 보다 전문적인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경험으로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누구나 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의미 보다는 개인의 역할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태도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특성으로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 따라 원하는 봉사활동 유형이 다른 것은 결국, 봉사활동의 참여적 의미가 개인의 역할에 대하여 의미를 두기보다는 사회적 의미로서 활동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사경험자의 경우 단순활동 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봉사활동 참여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봉사활동의 지속성과도 연계되어 봉사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음을 알려주는 교육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기존 봉사활동자에게는 봉사활동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문적인 역할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자 중심의 봉사활동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형과 수준별 차이로 자아인식태도를 살펴보는 것에 대한 제한점은 있지만, 자원봉사활동 경험과정이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성 인식의 태도에 차이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과정이 생애발달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작용될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자원봉사는 지속적인 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통하여 성장발달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별의 특성에 의한 대처과정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따라 경험하는 위기를 대처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와 행동유형을 지켜나가 결국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유지하는데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로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에 따른 특성과 사회적지지 인식수준이 자아정체성에 태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참여 의지의 특성이 자아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각 연령대의 자원봉사 참여하는 개인은 이제까지 자신이 구축한 사회적 관계와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개발하여 좀 더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비공식적 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지지 증 정

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를 인식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여 각 연령대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과 심리사회적 위기의 개입방법으로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이 증가됨에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정체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봉사활동의 참여의지가 단순한 봉사활동 자체보다는 사회적 역할로서 의미부여가 가능한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할 필요도 있다. 봉사활동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참여를 양적으로 촉진하는 방법보다는 봉사활동 요구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봉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동기강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인기 이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천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각 연령대에 따른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중 자아정체성 인식에 연령과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주목하여 각 연령대에 맞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집중적인 연계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기 성인기 집단의 경우 자원봉사에 사회적 의미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참여로 사회적 의미를 형성해 나가도록 모니터링과 동기부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장년기의 경우 개인 및 가족,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시기이기에 정체성 갈등의 위기개입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에는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과 사회적 가치들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 개발로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인 자원봉사활동 여부를 경험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수준과의 자아인식태도와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해석의 제한이 있다. 본 연구의 전체 표본수 중에서 자원봉사자원봉사 참여경험자 비율이 낮아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어 차후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수준과 지속정도 등이 포함된다면 자원봉사 실천적 함의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참여와 자아인식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원봉사경험과 자아인식 관계를 횡단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서 출발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인과관계의 구조를 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매개변수 검정을 통하여 이론에 기반한 다양한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의 변인들을 포함시킨다면 자원봉사활동의 실효적 측면을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K. S. Min. (2017). Older People's Experiences in Cultural Volunteering from a Social Practice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Ethics Studies*, 1(117), 243-272. DOI : 10.15801/je.1.117.201712.243

[2] J. Kim & M. Pai. (2010). Volunteering and trajectories of depression.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2(1), 84-105. DOI: 10.1177/0898264309351310

[3] S. Meier. & A. Stutzer. (2008). Is volunteering rewarding in itself? *Economica*, 75(297), 39-59. DOI: 10.1111/j.1468-0335.2007.00597.x

[4] M. A. Musick & J. Wilson. (2003). Volunteering and depression: The rol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in different age group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6(2), 259-269. DOI: 10.1016/s0277-9536(02)00025-4

[5] S. G. Post. (2005). Altruism, happiness, and health: It's good to be g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2(2), 66-77. DOI: 10.1207/s15327558ijbm1202_4

[6] J. Rietschlin. (1998).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4), 348-355. DOI: 10.2307/2676343

[7] P. A. Thoits. & L. N. Hewitt. (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2), 115-131. DOI: 10.2307/3090173

[8] P. A. Thoits. (2013). Volunteer Identity Salience, Role Enactment, and Well-Being Comparisons of Three Salience Construct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6(4), 373-398. DOI: 10.1177/0190272513498397

[9] J. Wilson. & M. Musick. (1999).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volunteer.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2(4), 141-168. DOI: 10.2307/1192270

[10] Korea Social Welfare Council(2019). *Statistics Yearbook of Social Welfare Voluntee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 S. H. Kim. (2013). Benefits of Volunteering to Physical Health,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Meaning in Life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3(1), 53-66. DOI: 10.20484/kglog.22.1.3

[12] Y. K. Kang. (2012).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Volunteering Activities in Regards to Age-Integrated Leisur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upport*, 7(1), 1-28.

[13] Korea Social Welfare Council(2019). *Statistics Yearbook of Social Welfare Volunteer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4] H. S. Kim. & S. Y. Yoon. (2001).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Volunteering Activities in Regards to Age-Integrated Leisur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2), 85-101.

[15] K. H. Ryu. (2010).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Volunteers` Motivation Reward Perception, Volunteering Task Satisfaction. *Social Welfare Policy*, 37(4), 75-96. DOI : 10.15855/swp.2010.37.4.75

[16] W. Kim. (2011). The Relationships between Volunteer Education, Importance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Attitudes of Volunteer activitie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8(3), 301-329.

[17] E. H. Jung. & S. K. Kahng. (2014).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 Experience and Depression Trajectory: Multi-Group Comparisons Among Three Age Group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5(1), 203-230. DOI: 10.16999/kasws.2014.45.1.203

[18] Y. S. Sim. & Y. M. Kim. (2018). The Impact of volunteer activities on the cognitive health of middle-aged women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frastructu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11-18. DOI: 10.14400/JDC.2018.16.8.011

[19] S. H. Rhee. & S. Y. Lee. (2015). Volunteer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its impact on successful aging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2(2), 43-60.

[20] Y. I. Kim., Y. C. Choi. & Y. J. Choi. (2015). A study on the Convergence Factors Which Influence on the Sustainability of Volunteer Activities -Focused on Ansan Volunteer Cent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0), 41-50. DOI : 10.14400/JDC.2015.13.10.41

[21] J. Wilson. & M. Musick. (1999).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volunteer.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2(4), 141-168. DOI: 10.2307/1192270

[22] K. S. Min. (2017). Older People's Experiences in Cultural Volunteering from a Social Practice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Ethics Studies*, 1(117), 243-272. DOI : 10.15801/je.1.117.201712.243

[23] W. Kim. (2011). The Relationships between Volunteer Education, Importance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Attitudes of Volunteer activitie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8(3),

- 301-329.
- [24] Y. S. Sim. & Y. M. Kim. (2018). The Impact of volunteer activities on the cognitive health of middle-aged women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infrastructu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11-18, DOI: 10.14400/JDC.2018.16.8.011
- [25] S. H. Kim. (2013). Benefits of Volunteering to Physical Health,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Meaning in Life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3(1), 53-66. DOI: 10.20484/klog.22.1.3
- [26] C. Grano., F. Lucidi., A. Zelli. & C. Violani. (2008). Motives and determinants of volunteering in older adults: An integrated model.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7(4), 305-326. DOI: 10.2190/AG.67.4.b
- [27] S. H. Rhee. & S. Y. Lee. (2015). Volunteer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its impact on successful aging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2(2), 43-60.
- [28] B. S. Kim. (2012) *Volunteer Management*. Seoul: Hakjisa.
- [29] H. S. Kim. & S. Y. Yoon. (2001).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Volunteering Activities in Regards to Age-Integrated Leisur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2), 85-101.
- [30] P. A. Thoits. & L. N. Hewitt. (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2), 115-131. DOI: 10.2307/3090173
- [31] J. A. Wheeler., K. M. Gorey. & B. Greenblatt. (1998). The beneficial effects of volunteering for older volunteers and the people they serve: A meta-analy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7(1), 69-79. DOI: 10.2190/VUMP-XCMF-FQYU-V0JH
- [32] M. C. Lee. (2008). A Critical Review on Volunteerism Studie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2(1), 151-176.
- [33] K. H. Ryu. (2010).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Volunteers` Motivation Reward Perception, Volunteering Task Satisfaction. *Social Welfare Policy*, 37(4), 75-96. DOI : 10.15855/swp.2010.37.4.75
- [34] W. Kim. (2011). The Relationships between Volunteer Education, Importance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Attitudes of Volunteer activitie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8(3), 301-329.
- [35] V. Dulewicz. & M. Higgs. (1999). Can emotional intelligence be measured and developed?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20(5), 242-252. DOI: 10.1108/01437739910287117
- [36] M. D. Berzonsky. (1994). Self-identity: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ss and cont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4), 453-460. DOI: 10.1006/jrpe.1994.1032
- [37] M. H. Hwang., H. J. Lim., J. S. Im. & B. Y. Son. (2012). Understanding Latent Sub-groups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Level of Ego-ident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3), 115-142. DOI: 10.15753/aje.2012.13.3.005
- [38] A. S. Waterman.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 DOI: 10.1037/0012-1649.18.3.341
- [39] Y. H. Lee., H. K. Kim. & N. S. Kim. (2013).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Psychological Symptoms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0), 483-492.
- [40] T. W. Eom. (2008).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Indigent Population.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8, 36-66.
- [41] P. H. Kim. & H. S. Kim. (2010).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Stress,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in Community Resi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4(2), 197-210.
- [42] Y. W. Kim. & H. Lee. (2010).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Stress and Mental Health of the Housewives Participated in a Aerobic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40, 843-852. DOI: 10.51979/KSSLS.2010.05.40.843
- [43] S. Y. Kim. (2003). The Influence of the Adolescent` Participation in Leisure Sport Activities on the Perceived Freedom and Self-Identity.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16(2), 497-511.
- [44] J. W. Park.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45] Y. S. Kim. (1995).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Seoul.
- [46] H. R. Jo. (1996). *The influence of volunteer service activity on the development of selfidentity and morality of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조 지 용(Gee-yong Jo) [장학원]



- 2006년 3월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 2009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사회복지학)
- 2013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사회복지실천 전공)
- 2017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가족치료, 노인복지, 사회적 관계, 웰에이징
- E-Mail : georzi@konyang.ac.kr

임 효 남(HyoNam Lim) [장학원]



- 2001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7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성인 및 노인간호, 암환자, 웰다잉, 웰에이징
- E-Mail : hnlim@konyang.ac.kr

김 두 리(Doo Ree Kim) [장학원]



- 2007년 3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학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치매, 노인, 삶의 질, 극복력, 웰에이징
- E-Mail : kdr2015@konyang.ac.kr

강 경 희(Kyung-hee Kang) [장학원]



- 2010년 2월 : 경북대학교 미생물학과(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감염관리, 치위생, 웰다, 웰에이징
- E-Mail : dhkhkang@konyang.ac.kr

김 설 희(Seol-Hee Kim) [장학원]



- 2005년 3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 석사)
- 2009년 3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10년 3월 ~ 2014년 2월 :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보건학, 교육학, 웰에이징
- E-Mail : ableksh@konyang.ac.kr

김 용 하(Yong-Ha Kim) [장학원]



- 2000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박사(생산관리)
- 2003년 4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 2011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병원 행정원장
- 관심분야 : 자원관리, 서비스품질인증, BSC, 웰에이징

- E-Mail : kyh@konyang.ac.kr

이 중 형(Chong-Hyung Lee) [장학원]



- 2001년 2월 : 한림대학교 통계학과(이학박사)
- 2001년 3월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복잡계통계연구센터 박사 후 연구원
- 2002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병원경영, 빅데이터, 경영과학, 웰에이징
- E-Mail : chlee@konyang.ac.kr

안 상 윤(Sang-Yoon Ahn) [장학원]



- 1999년 8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 박사
- 1987년 4월 ~ 2000년 12월 : 충남대학교 기획연구실
- 2002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병원조직인사관리, 의료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웰에이징

- E-Mail : greahn@konyang.ac.kr

김 광 환(Kwang-Hwan Kim)

[중신화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노인, 삶의 질, 치매, 웰에이징
- E-Mail : kkh@konyang.ac.kr

송 현 동(Hyeon-Dong Song)

[장학원]



- 2006년 2월 : 한국학중앙연구원(철학 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문화관광, 웰니스관광, 죽음학, 종교문화, 웰에이징
- E-Mail : ritual@konyang.ac.kr

황 혜 정(Hye-Jeong Hwang)

[장학원]



- 2010년 2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예방의학과(의학박사)
- 2012년 3월 ~ 2018년 2월 :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조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보건정책, 감염관리, 웰다잉, 웰에이징

· E-Mail : hhj@kycu.ac.kr

김 문 준(Moon-Joon Kim)

[장학원]



- 1995년 8월 : 성균관대 철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관심분야 : 한국철학, 동양철학, 웰에이징
- E-Mail : kmj@konyang.ac.kr

박 아르마(Arma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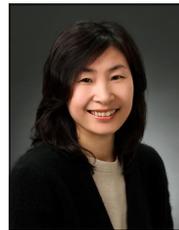
[장학원]



-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불문과(문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조교수
- 관심분야 : 문학비평, 번역학, 학제간 연구, 웰다잉, 웰에이징
- E-Mail: parkarma@konyang.ac.kr

구 진 희(Ku, Jin Hee)

[장학원]



- 2001년 2월 : 충남대학교 컴퓨터과 학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공업(컴퓨터)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스텝스대학 SW교양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컴퓨터과학 교육,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클라우드 컴퓨팅
- E-Mail : jhku@mokwon.ac.kr

장 경 희(Kyung-Hee Chang)

[장학원]



- 2017년 2월 :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교육융합학과 (문학석사)
- 2018년 4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예술치료학과 박사 수료
- 2021년 10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연구원
- 관심분야 : 죽음교육, 웰다잉, 삶의 질, 문학예술치료, 웰에이징
- E-Mail : 386hee@hanmail.net